

간호학 학사과정 내 중환자 간호학 교육의 운영 현황과 발전 방향

이영희¹ · 손연정² · 강지연³ · 김복자⁴ · 김정연⁵ · 이윤미⁶ · 최수정⁷ · 최은희⁸ · 하이경⁹

¹ 성균관대학교 임상간호대학원 교수, ²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교수, ³ 동아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⁴ 대구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⁵ 세브란스병원 간호국 파트장, ⁶ 인제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⁷ 성균관대학교 임상간호대학원 임상부교수, ⁸ 한국성서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⁹ 부산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

Critical Care Nursing Courses in Bachelor of Science in Nursing Programs : Present and Future Directions

Yi, Young Hee¹ · Son, Youn-Jung² · Kang, Jiyeon³ · Kim, Bog Ja⁴ · Kim, Jung Yeon⁵
Lee, Yun Mi⁶ · Choi, Su Jung⁷ · Choi, Eun Hee⁸ · Ha, Yi Kyung⁹

¹ Professor, Department of Clinical Nursing Science, Samsung Medical Center,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² Professor, Red Cross College of Nursing, Chung-Ang University, Seoul

³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Dong-A University, Busan

⁴ Assistant Professor, Public Health Department of Nursing, Daegu University, Daegu

⁵ Assistant Manager, Severance Hospital, Seoul

⁶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ollge of Medicien, Inje University, Busan

⁷ Clinical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Clinical Nursing Science, Samsung Medical Center,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⁸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orean Bible University, Seoul

⁹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Yangsan

Purpose : This study examined the status of critical care nursing education in bachelor of science in nursing (BSN) to suggest future directions. **Methods :** The target of the survey was 185 BSN programs that were certified by the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as of October 31, 2016. We structurally reviewed the curriculums and the course syllabi. **Results :** Forty-eight courses of 42 BSN programs were analyzed. Only five programs offered both theoretical and practical courses in critical care nursing; 22 offered theoretical courses and 26 offered practical courses. Most courses were offered as electives with 1 or 2 credits, and were taught by faculty who were experts in adult health nursing. **Conclusion :** The results show that there is a quantitative shortage of critical care nursing education in the curriculum of BSN programs in Korea. The lack of knowledge and skills on critical care can lead to a burden of new intensive care unit nurses and is a threat to patients' health.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practical and integrative curriculum for critical care nursing education.

Key words : Baccalaureate nursing education, Critical care nursing, Curriculum, Quality improvement

투고일 : 2017. 9. 25 수정일 : 2017. 10. 12 게재확정일 : 2017. 10. 13

주요어 : 간호학 학사, 중환자 간호, 교과과정, 질 향상

* 이 논문은 한국중환자간호학회 정책연구사업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Son, Youn-Jung

Professor, Red Cross College of Nursing, Chung-Ang University, 84 Heukseok-Ro, Dongjak-Gu, Seoul, 06974, Korea
Tel: 82-2-820-5198, Fax: 82-2-824-7961, E-mail: yjson@cau.ac.k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중환자 간호는 위기상황에 직면한 대상자의 다양한 반응을 다루는 간호의 한 분야로(Asfour, Ahmed, & Halim, 2016), 중환자실은 병원 내에서도 가장 중증도가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생명을 위협을 초래하는 여러 가지 건강문제에 대해 다학제적이고 집중적인 치료가 이루어지는 곳이다(Elsaman, 2017; York & Smith, 2007). 따라서 중환자실 간호사는 개인위생을 포함한 기본간호에서부터 높은 수준의 지식과 숙련성을 요하는 특수간호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이고 숙련된 간호를 환자에게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에게도 수준 높은 간호 실무를 제공해야 한다(Mould, White, & Gallagher, 2011; Poncet et al., 2007). 또한 근래에는 중환자실 병상 수의 제한으로 중증 질환을 가진 환자가 중환자실뿐만 아니라 일반 병동, 요양시설 등 중환자실 이외의 곳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데(Kim et al., 2017) 이는 중환자실 간호사뿐만 아니라 병동을 포함한 다양한 근무부서에서도 중환자 간호에 대한 기본 지식 및 실무역량을 갖추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간호전문직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지식과 실무역량은 간호학 학사과정을 통해 학습된다(Kim et al., 2017). 그러나 간호대학을 막 졸업한 신규간호사들은 실제 임상 실무에서 중증도가 높은 환자를 간호할 준비가 부족하다. 실제로 임상 실무에서 간호사의 중환자 간호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부족하다고 알려져 있는데(Brenner, & Iafrati, 2014; Proulx, & Bourcier, 2008), 간호사가 비판적 사고, 업무 위임, 의사와의 소통 같은 간호사로서 직면하게 되는 도전들을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 임상 현장을 떠나게 된다(Poncet et al., 2007).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규간호사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간호교육 과정의 구축이 요구된다.

오랫동안 간호계에서는 신규간호사가 실무를 위해 받은 학교 교육과 실제 임상 실무에서 신규간호사에게 요구하는 것 사이에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을 사실로 인정해왔는데, 이러한 간극은 간호학생들이 학습하는 지

식과 기술이 실제 임상 실무에서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기능과 불일치함을 나타낸다(Kim et al., 2017). 즉 간호교육 과정에서의 이론과 실습의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가 있어 간호학생이 졸업 후 신규간호사로서의 실무를 수행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Kim, Kim, & Ahn, 2012; Proulx & Bourcier, 2008).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증의 급·만성 환자 간호에 필요한 상황 판단과 적절한 간호중재를 의사 결정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가 어느 분야보다 강조되는 영역인(Moghaddasian et al., 2013; Scholtz et al., 2016), 중환자 간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실무가 일치하는 간호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또한 2003년 전문간호사 제도의 법제화에 따라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문간호사가 배출되었고, 비록 국내 전문간호사의 역할이나 권한과 관련된 법적 이슈가 여전히 논란되고 있지만 의료계의 현실은 환자들에게 제공해야 할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양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간호사를 포함한 전문 진료지원인력이 계속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이미 질적인 교육과정과 시험제도를 거쳐 검증된 인력인 중환자 전문간호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 마련과 안정된 정착을 위해서라도 학부 교육에서 중환자 간호에 대한 기본 지식과 술기, 기본 간호업무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내·외 간호대학에서는 현재 중환자 간호 관련 교과목을 정규 교육과정에 반영하려는 추세이나, 아직까지 국내의 경우 4년제 간호학 학사과정 내에서 중환자 간호학의 교육과정에 대한 국내 연구는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아직 표준 교과과정도 개발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대학의 간호학 학사과정 내 중환자 간호학 관련 교과목의 운영 현황을 조사함으로써 향후 교육과정의 표준화와 중환자 간호 실무분야 발전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간호학 학사과정 내 중환자 간호교육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현 교육의 문제점과 향후 중환자 간호 교육과정의 표준화와 발전 방향을 도출하고자 함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전국 4년제 대학의 학부과정에서 운영 중인 '중환자 간호'에 대한 이론 및 실습 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6년 10월 31일 기준, 국내 정부인정 간호교육인증을 받은 185개교의 4년제 간호학과를 대상으로, 교육과정(2016)에 "중환자 간호"라는 교과목명이 개설되었거나, 과목내용이 중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과목을 대상으로 하였다. 단, 교과목 내용에 중환자 실 혹은 중환자 간호라는 단어 및 수업 내용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한 학기 통상 15주~16주 수업 중 절반 이상인 최소 7주 이상의 중환자 간호 관련 기본적인 학습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서 본 연구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3. 연구도구

국내 간호학과의 '중환자 간호' 교과목 운영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본 연구팀은 중환자 간호 교육을 학부나 대학원에서 중환자 간호학 분야를 가르치거나, 한국 중환자간호학회 혹은 병원중환자 간호사회 활동을 하는 10인의 전문가타당도 검증을 통해 중환자 간호 교육에 대한 조사지를 만들었다.

조사지는 크게 분석대상 학교의 일반적 특성(설립형태, 위치, 설립년도, 학과유형, 학년별 재학생수)과 이론 및 실습 교과목의 특성(강좌개설 형태, 수강대상, 학점, 교육형태, 교수자 전공, 주요 수업내용)로 구성되었다.

4.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1단계로 한국간호교육평가원 홈페이지(<http://www.kabon.or.kr/kabon02/index06.php>)를 통해 간호교육인증을 받은 4년제 교육기관(대학과

전문대학)을 185개교를 추출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추출된 대학의 본부 및 간호학과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된 2016년 교육과정, 학과요람, 시간표 등을 이용하여 연구자 2인이 교과목 명칭 혹은 교과목 소개에 중환자 간호 단어가 포함된 교과목만을 상호교차 확인하여 76개교로부터 105개 교과목을 1차 선정하였다. 마지막 단계는 이들 교과목 중 교과목 소개 및 열람이 가능한 수강계획서를 통해 15주 수업기간 중 최소 7주 이상에 중환자 간호 관련 내용이 이론 또는 실습내용에 포함된 교과목만을 추출하여 최종 42개교 총 48개 교과목(이론 22과목, 실습 26과목)을 본 연구에 포함하였다.

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빈도와 백분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연구대상 학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 학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42개의 참여대학 중 35개교(83.3%)가 사립대학이었으며, 소재지(간호학과 위치 기준)는 경상도, 전라도, 서울 순으로 나타났으며, 간호학과 개설년도는 2000년 이전이 24개교 57.2%로 가장 많았다.

분석 대상 학교는 대학이 33개교, 전문대학이 9개교로 두 기관 모두 소속부서 단위가 간호학과 형태가 각각 19개교, 8개교로 가장 많았다. 학년별 재학생 수는 100명 이상이 23개교(54.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50~99명이 15개교(35.7%)로 나타났다.

2. 중환자 간호 이론 및 실습 교과목 개설 형태

42개교 중 중환자 간호 교과목을 이론과 실습 모두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5개교였으며, 이중 이론은 22개교에서, 실습은 26개교에서 운영하고 있었다(Table 2).

먼저 이론 교과목은 전공선택 형태로 개설된 경우가 20개교(90.9%)로 가장 많았고, 학점은 2학점 2시간이 13개교(59.1%)였다. 수강 대상은 4학년이 18개교(81.8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Nursing Schools with Critical Care Nursing Curriculum for Bachelor's Degree (N = 4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Ownership	Public	7(16.7)
	Private	35(83.3)
Location	Seoul	7(16.7)
	Kyunggido	4(9.5)
	Kangwondo & Jeju	2(4.8)
	Chungchungdo	5(11.9)
	Kyungsangdo	11(26.2)
	Jeollado	10(23.8)
Established year of BSN	Before 2000	24(57.2)
	2001-2009	14(33.3)
	after 2010	4(9.5)
Type of nursing school		
College (n=9)	Department	8(19.1)
	College of nursing	1(2.4)
University (n=33)	Department	19(45.2)
	Division	4(9.5)
	College of nursing	10(23.8)
Enrollments of students	< 50	4(9.5)
	50-99	15(35.7)
	≥100	23(54.8)

BSN = bachelor of science in nursing

%)로 가장 많았고, 교육 형태는 단독 강의가 16개교 (72.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그룹 티칭이 4개교 (18.2%)로 나타났다.

실습 교과목 또한 전공선택으로 개설된 경우가 21개교(80.8%)로 가장 많았고, 학점은 2학점 6시간이 14개교, 약 53.9%로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한편, 동일하게 2학점 6시간으로 개설된 6개교의 경우는 다른 영역(수술실, 응급실, 외과계 병동)과 1:1의 비율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실습 진행은 단독 진행이 18개교, 약 69.3%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3. 중환자 간호 이론 및 실습 교과목 운영 내용

중환자 간호 이론을 개설한 22개교 중 교과목명을 중환자 간호(학)로 한 경우는 19개교였으며, 나머지 2

Table 2. School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related to Critical Care Nursing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Theory (n=22)	Type of course	
	Major required	2(9.1)
	Major elective	20(90.9)
	Lecture credits(hours)	
	1(1)	8(36.4)
	2(2)	13(59.1)
	3(3)	1(4.5)
	Target learner	
	Junior	4(18.2)
	Senior	18(81.8)
Type of teaching	Alone	16(72.7)
	Team teaching	4(18.2)
	Unknown	2(9.1)
	Practicum (n=26)	
Type of course		
Major required	5(19.2)	
Major elective	21(80.8)	
Practicum credits(hours)		
1(3)	5(19.2)	
2(2)	1(3.8)	
2(6)*	6(23.1)	
2(6)	14(53.9)	
Target learner		
Junior	3(11.5)	
Senior	23(88.5)	
Type of teaching		
Alone	18(69.3)	
Team teaching	3(11.5)	
Unknown	5(19.2)	

* combination with other subject

개교는 중환자 관리, 1개교는 응급 및 중환자 간호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22개교 중 17개교에서 성인간호학 담당교수가 강의를 맡고 있었다(Table 3). 주요 수업내용은 중환자에 대한 이해, 비판적 사고를 통한 효과적인 의사결정, 중환자 대상의 간호과정 적용과 전인적 간호접근이었다.

중환자 간호 실습을 개설한 26개교 중 교과목명을 중환자 간호(학)실습으로 한 경우는 8개교였으며, 17개교는 성인간호학실습을 교과목명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

Table 3. Operation Status of Critical Care Nursing in Bachelor Programs

Curriculum subject (n)	Specialty of Course Instructor		Main contents
	Adult health nursing	Unknown	
	n	n	
Course title of theory (n=22)			
Critical care nursing (n=19)	14	5	1. Understanding regarding critically ill patients 2. Effective decision making through critical thinking
Critical care management (n=2)	2		3. Establishment of nursing process for ICU patients
Emergency and critical care nursing (n=1)	1		4. Holistic approach
Course title of practicum (n=26)			
Critical care parcticum (n=8)	3	5	1. Health assessment 2. Understanding ICU environments
Adult health nursing practicum (n=17)			3. Application of nursing process in the care of ICU patients and families
ICU only (n=11)	6	5	4. Provision holistic care based on EBP
ICU & OR (n=2)	2		5. Identification ICU nurses' role
ICU & surgical ward (n=3)	2	1	6. Understanding building a multidiciplinary approach
ICU & ER (n=1)		1	7. Identification ethical issues and dilemma
Advanced critical care practicum (n=1)	1		8. Implementation theraputic communication skills
Total (n=48)	31	17	

ICU = intensive care units; OR = operation rooms; ER = emergency rooms; EBP = evidence based practice

었고, 특히 11개교를 제외한 6개교는 중환자실과 수술실, 중환자실과 외과계 병동, 중환자실과 응급실 실습을 각각 병합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나머지 1개교는 중환자 간호심화실습이라는 형태로 교과목이 운영되고 있었다. 주요 실습내용은 건강사정, 중환자실 환경에 대한 이해, 중환자 및 가족 대상의 간호과정 적용, 전인적 간호제공, 중환자실 간호사의 역할 및 다학제적 접근에 대한 이해, 윤리적 이슈와 치료적 의사소통 기술 적용이었다.

IV. 논 의

중환자 간호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실무역량을 갖춘 간호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학부 과정에서 이론과 실수가 연계된 중환자 간호교육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4년제 학사과정에서 중환자 간호 이론과 실습 교육의 운영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중환자 간호 교육의 표준화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먼저 연구대상 학교들의 중환자 간호 이론 및 실습

교과목 개설 형태를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중환자 간호 내용을 이론 혹은 실습 교과목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전체 대상 학교 185개교 중 42개교로 약 22.7%에 불과하였다. 또한 개설된 이론 및 실습 교과목 각각 22개, 26개 역시 약 80% 이상이 전공선택으로 개설되어 있었다. 특히 이론 교과목의 경우 다른 전공선택 과목과 함께 트랙 교과목으로 묶여 개별 학생에 따라서는 중환자 간호 교과목을 배우지 못한 채 졸업하게 된다. 또한 이론과 실습 교과목을 둘 다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5개교로 매우 적었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중환자실 신규간호사들은 학부 교육과정에서 중환자 간호에 대한 지식 및 술기를 접하지 못하거나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중환자 간호에 대한 부담감과 중환자실 자체에 대한 환경 부적응으로 번아웃증후군(burn-out syndrome)은 물론 중환자 및 가족과의 비효율적 의사소통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다른 부서에 비해 이직률이 훨씬 높다(Ahn & Kim, 2013; Chang et al., 2010; MaGqaughey, 2009; Poncet al., 2007). 학부생의 경우에도 중환자 간호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실습에 대한 자신감은 물론 만족도가 높았고(Alasad et al., 2015) 실제 임상실습에서 사전에 학습

한 교육내용으로 인해 실습 부담감은 감소하고, 중환자 간호에 대한 자신감은 증가하였다(Gallagher et al., 2011; Mould, White, & Gallagher, 2011; Son et al., 2017; Tastan et al., 2015; Vatansever & Akansel, 2016). 따라서 이런 선행연구결과들을 고려할 때 학부교육에 중환자 간호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실습 교육은 학생이 배운 간호지식체를 실무현장과 연계하여 임상수행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의 경우 실제로 중환자 간호의 이론과 실습을 연계해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극히 소수에 불과할 뿐 아니라, 현행 임상실습 교육은 임상환경, 지도자 및 학생 측의 여러 요인 때문에 위험 부담이 낮은 단편적인 간호기술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Chang et al., 2010; Lee, Kim, & Kim, 2011; So et al., 2008). 그리고 실제로 국내 중환자실 간호사들은 간호대학 졸업 당시 중환자 간호와 관련된 지식과 기술이 부족했으며, 졸업 전 중환자 간호와 관련된 역량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져야 한다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Kim et al., 2017). 그러므로 중환자실 간호업무가 매우 어렵고 미숙하여 신규간호사가 경험하게 되는 부적응, 임상간호실습과 이론적 지식과의 괴리, 효과적인 간호 경험의 부족 및 자신감 저하 등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선행연구들(Kim et al., 2017; Park, 2011; Proulx & Bourcier, 2008)을 토대로 향후 학교, 임상현장, 한국중환자간호학회, 병원중환자간호사회 등의 다각적 연계를 통해 현행 교육에 대한 개선책이 반드시 모색되어야 한다.

최근 국내 실정을 고려할 때, 중환자 간호 이론 및 실습 교과목을 개설하지 못하는 이유는 현재 성인간호학을 기준으로 제시된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실습지 기준을 충족하는 실습지 확보의 어려움과 중환자 간호 교과목 학점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다양하다. 만약 중환자 간호에 대한 내용이 국가시험에 교과목으로 편성된다면 중환자 간호 교육의 정착을 촉진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중환자 간호에 대한 정의를 중환자실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사회와 병원 등의 모든 임상현장에서 중증의 질환 혹은 급성기 중환자 등을 간호하는 개념으로 임상과 학교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성인간호학 교과목 혹은 응급 및 재난간호, 노인간호, 호스피스간호와 같은 타과목

과의 통합이나 연계를 통해 이들 교과목에 중환자 간호 교육내용이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 한편 본 연구에서 중환자 간호의 교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가 주로 성인간호학 전공자로 나타났는데, 이는 성인간호학 및 유사 관련 교과목(노인간호학, 응급간호학, 재활간호학, 호스피스 간호 등)과의 통합성을 고려할 때 동일한 맥락에서 긍정적 측면으로도 볼 수 있다. 실습 또한 실습지 확보가 어려운 현 실정을 감안해서 중환자실 실습에 국한하지 말고 중증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환자가 많이 입원해 있는 병동으로 확대한다면 중환자 간호 교육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중환자 간호 이론 및 실습 교과목 운영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적인 중환자 간호 교육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McGauhey, 2009), 임상현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일반 병동에서 환자의 갑작스런 상태 악화에 따른 건강사정,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 및 가족에 대한 심리적 간호, 특히 완화간호에 대한 내용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Martin과 Koesel (2017)에 의하면 특히 중환자의 경우 급성기 집중치료로 인한 상태 악화로 긍정적 건강결과를 얻기도 하나, 대부분 상태 악화로 입원한 경우가 많아 예기되거나 예기치 않은 죽음이 많은 만큼 완화간호나 생애 말 간호(end-of-life care)에 대한 필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준비로 학부에서 중환자의 특성 및 상태 변화에 따른 간호를 사전에 충분히 교육받지 못한다면 임상현장에서 신규간호사들은 심리적으로 상당한 우울 및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Elsman, 2017). 또한 중환자실의 병상 수는 제한되어 있어 많은 환자들이 중환자실 이외의 일반 병동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으로 중환자 간호는 중환자실 뿐 아니라 일반 병동 및 타 부서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Kim et al., 2017; Lee et al., 2011). 따라서 중환자실 간호사는 물론 중증 환자를 간호하게 되는 병동간호사들에게 전문적인 지식이나 숙련성이 기본적으로 요구되므로(Scholtz et al., 2016), 학부 과정에서는 학생들이 중환자 간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축적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학교와 병원이 연계한 수준별 표준화된 중환자 간호 교과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중환자 간호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고충실도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이러닝 프로그램 개발(Ha & Koh, 2012; Park, 2011; Kim et al., 2012)이나 학생 실습

교육에서 프리셉터를 활용하여 밀착된 임상지도, 관련 핵심술기 교육 강화(Alasad et al., 2015; Baid, 2011; Brenner & Iafrazi, 2014; Guedes et al., 2012) 등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 개발 등을 함께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환자 간호 분야의 교육의 수준 향상을 위해 문헌에서 제기된 개선점 중 하나는 중환자 간호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현장지도자의 전문성 확보이다(Guedes et al., 2012; Son, et al., 2017; York & Smith, 2007). 이는 중환자 간호 전문 영역의 확보 이전에 중환자 간호 분야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자 스스로 중환자 및 중환자 간호에 대한 정의와 요구되는 간호에 초점을 맞춘 교육과 연구를 지속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와 연결된다. 우리나라는 중환자 전문간호사 과정이 석사 과정에 개설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인적 자원과의 활발한 연계를 통해 부족한 교육내용을 보완하는 노력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다. 또한, 임상현장에서는 복합질환자의 증가로 인한 간호사의 대처능력과 고등 사고를 필요로 하고 최신 임상을 반영한 상황에 적합한 문제해결형 문항개발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다(Kim et al., 2017). 따라서 중환자 간호 영역의 직무분석을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분석을 통해 도출된 간호실무는 국가시험의 출제범위에 적용되고, 실무 수행을 위해 최소한 갖추어야 할 능력이 교육과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역동적, 순환적 교육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일반인에게 공개된 각 대학 및 학과 홈페이지, 교육과정 개설표, 수업계획서 등을 통해 조사된 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간호교육인증 평가에 따라 각 학교별 교과 과정표 및 교과목 개요는 비교적 최신의 정보를 담고 있어 신뢰할만 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는 이론 및 실습 교과목의 지도교수의 의견 등이 포함되지 않아 교과목 운영 현황을 설명하는 데는 제한이 있다. 그러므로 추후 이러한 객관적 자료와 더불어 실제 교육자나 중환자 간호 교과목을 수강하는 간호대학생의 경험이나 의견을 포함하여 교육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V. 결론 및 제언

국내 의료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

는 환자의 중증도 수준은 날로 높아지고 있으나, 중환자실의 제한된 병상수로 인해 중환자의 입원은 중환자실에 국한되지 않고 병원 내 다양한 부서로 확대되고 있어 나날이 중환자 간호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2016년 기준 국내 4년제 학부 과정에서 중환자 간호 이론 및 실습 교육을 하는 학교는 42개교에 불과하였고, 개설된 이론 22개, 실습 26개 교과목 또한 전공필수가 아닌 대다수가 전공선택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내용 측면에서도 기본 중환자 간호 이외의 최근 임상현장에서 요구되는 완화간호 같은 내용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환자 간호에 대한 개념 정립과 더불어 실무에 유용한 교육을 위한 표준화된 중환자 간호 교과과정 개발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효율적인 중환자 간호 교육을 위해 학교와 병원이 연계하여 표준 교과과정을 개발하는 것과 더불어 중환자 간호학을 가르치는 교육자들을 대상으로 중환자 간호 교육 관련 경험을 파악하기 위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 같은 질적 연구를 제언하는 바이다.

REFERENCES

- Ahn, J. W., & Kim, K. S. (2013). ICU nurses' perceptions of communication difficulties, importance, satisfaction and communication barrier with patient families.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10(1), 12-23.
- Alasad, J. A., Ahmad, M. M., Tabar, N. A., & Ahmad, H. (2015). Nursing student's experiences in critical care course; A qualitative study. *Journal of Intensive and Critical Care*, 1(1), 1-7.
- Asfour, H., Ahmed, F. R., & Halim, G. E., A. (2016). Measuring changes in attitude, practice and knowledge of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after receiving an educational intervention in ethical comportment in critical care nursing.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and Practice*, 6(5), 49-58.
- Baid, H. (2011). The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within intensive care nursing education. *British Association of Critical Care Nurses*, 16(2), 99-105.
- Brenner, Z. R., & Iafrazi, N. (2014). Incorporating best

- practices into undergraduate critical care nursing education. *Critical Care Nurses*, 34(1), 61-65.
- Chang, S. Kwon, E., Kwon, Y. O., & Kwon, H. K. (2010). The effects of simulation training for new graduate critical care nurses on knowledge, self-efficacy, and performance ability of emergency situations at intensive care unit.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2(4), 375-383.
- Elsaman, S. E. (2017). Undergraduate critical care nursing students'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caring of dying patients. *IOSR Journal of Nursing and Health Science*, 6(1), 31-40.
- Gallagher, P. J., Rice, B., Tierney, P., Page, K. & McKinney, A. (2011). An evaluation of a critical care course for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Evaluation*, 16(5), 261-269.
- Guedes, G. F., Ohara, C. V. S., & Silva, G. T. R. (2012). Intensive care unit: a significant space for the professor-student relationship. *Acta Paulista de Enfermagem*, 25(2), 146-150.
- Ha, Y. K., & Koh, C. K. (2012). The effects of mechanical ventilation simulation on the clinical judgement and self-confidence of nursing students.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9(2), 119-126.
- Kim, D. R., Lim, H. N., Yang, S. Y., & Kim, J. I. (2017). Factors influencing competence in the intensive and critical nursing of seni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3(2), 214-223.
- Kim, J. A., Chu, M. S., Kwon, K. J., Seo, H. K. & Lee, S. N. (2017). Core competence for new nurses.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23(1), 40-53.
- Kim, K. S., Kim, J. A., & Ahn, J. W. (2012).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a self-directed critical care nursing e-learning program.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9(1), 51-60.
- Lee, E. S., Kim, J. S., & Kim, A. Y. (2011). Effects of clinical practicum reinforcement program on nursing student's clinical competency and satisfaction in the ICU.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17(2), 262-274.
- Martin, B., & Koesel, N. (2017). Nurses' role in clarifying goals in the intensive care unit. *Critical Care Nurse*, 30(3), 64-73.
- McGaughey, J. (2009). Acute care teaching in the undergraduate nursing curriculum. *Nursing in Critical Care*, 14(1), 11-16.
- Moghaddasian, S., Dizaji, S. L., & Mokhtar, M. (2013). Nurses empathy and family needs in the intensive care units. *Journal of Caring Sciences*, 2(3), 197-201.
- Mould, I., White, H., & Gallagher, R. (2011). Evaluation of a critical care simulation series for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Contemporary Nurse*, 38(1), 180-190.
- Park, M. (2011). Effects of evidence based practice integrated critical care clinical practicum.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7(3), 346-354.
- Proulx, D. M., & Bourcler, B. J. (2008). Graduate nurses in the intensive care unit: An orientation model. *Critical Care Nurse*, 28(4), 44-52.
- Poncet, M. C., Toulic, P., Papazian, L., Kentish-Barnes, N., Timsit, J. F., Pochard, F., et al. (2007). Burnout syndrome in critical care nursing staff. *American Journal of Respiratory and Critical Care Medicine*, 175(7), 698-704.
- Scholtz, S., Nel, E. W., Poggenpoel, M., & Myburgh, C. P. H. (2016). The culture of nurses in a critical care unit. *Global Qualitative Nursing Research*, 3, 1-11.
- So, H. S., Bae, Y. S., Kim, Y. O., Kim, S. M., Kang, H. Y., Choi, J. Y., et al. (2008). Development of web-based multimedia contents for the critical care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through inter college collaboration.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0(5), 778-790.
- Son, Y. J., Song, H. S., Won, M. H., & Lim, S. H. (2017). Clinical experiences of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in adult intensive care unit using content analysi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7(16), 353-370.
- Tastan, S., Lyigun, E., Ayhan, H., & Hatipoglu, S. (2015). Experiences of Turkish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in the intensive care unit. *Collegian*, 22(1), 117-123.
- Vatansever, N., & Akansel, N. (2016). Intensive care unit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during their clinical placements: A qualitative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Caring Science*, 9(3), 1040-1048.
- York, N. L., & Smith, C. S. (2007). A blueprint for developing an undergraduate critical care nursing course. *Dimensions of Critical Care Nursing*, 26(3), 110-116.